

광주·전남 사학 공무직 파업 불참

중·고교 비중 광주 40% 안팎·공무직 1000명 훌쩍

교섭대상 달라 눈치보기…사학 총파업 참여율·미미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으로 광주·전남 30여 학교에서 단체급식이 중단되고 30여개 초등·돌봄교실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사학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전남에서 사립학교 공무직 참여율이 제로에 가까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첫날인 이날 광주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253곳 가운데 132곳(52%)이 단체급식을 중단했다. 43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직 4명 중 1명꼴로 파업에 동참했다.

전남은 206개교에서 급식종사자들이 파업했다. 급식종사자 3198명 중 30% 가까운 인력이 참여했다. 학교수로도 4곳 중 한 곳꼴로 급식이 중단됐다. 초등·돌봄교실도 광주 152곳 중 2곳, 전남 42곳 중 30곳 돌봄진단서가 파업에 나서고 대체 인력이 없어 운영을 멈췄다.

교무행정과와 행정사무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통화치료보조원, 순회사서 등도 일부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체 인력으로 빈 자리를 메우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참여율은 제로(0)에 가깝다.

광주·전남을 합쳐 사립학교 공무직은 광주 500~600명 등 1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공식적으로 파업 참가자가 한 명도 없고, 전남에서는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고 참여하고 있지만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학의 비중은 의아스런 대목이다. 광주는 공립이 대다수인 초등·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사학 비중은 43.9%(166곳 중 73곳)에 이르고, 특히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62.7%(67곳 중 42곳)다. 학생수도 전체 31.8%, 중·고등학교는 45.9%, 고등학교만 따지면 61.9%다.

전남 역시 전체 14.4%, 중·고등학교만 따지면 20%가 사학이다. 학생수도 사립·중·고생이 2만9250명으로 29.7%에 달한다. 10명 중 3명꼴이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에도 사학공무직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는 크게 2~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섭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립은 교육부, 공립은 시·도 교육청이 교섭 파트너이지만 사학

은 법인 이사장이 고용주이다 교섭 대표다.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파업에서 사학공무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셈이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사학공무직들은 유일한 법적장치로 '지역적 구속력(地域的拘束力)'에 올인하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2013년 국가와 교육감·직고용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돼 신분 안정을 보장받게 됐고 사학공무직도 비슷한 시기 '교육'과 '학교'라는 동질성 뒤에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교섭 결과가 곧바로 반영되는 국·공립과 달리 사학에서는 일부 미반영되거나 사학법인과 개별 교섭을 거쳐야 불안정성이 높고, 사학 특성상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자유롭게 파업에 나서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세금으로 사학 운영재원의 97% 공립학교와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형적 사학법 티에 정작 인사권과 단체협약권 등은 사학 재판이 행사, 교육부나 교육청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보니 2

종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사학공무직들의 하소연이다.

지역적 구속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며 지역 이 2개 이상의 특별·광역·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이 결정 주체이고, 직권으로 노동위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가 유일하게 지역적 구속력을 발동했고, 광주는 광주시를 통해 의결을 요청해둔 상태고 전남은 준비중이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사학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종사자도 적지 않음에도 사학공무직의 신분상 취약성과 법적 특수성 때문에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적 구속력이 발휘되면 신분상 구속과 심적 고통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전두환씨 8일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방청권 배부 방식은 선착순이며,

배정분은 65석이다. 배부는 재판 당

일 오후 1시10분 부터이며, 장소는 201호 법정 입구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의 증언이 이어진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기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

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민족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과정지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주춘정 기자

광주서 흉기로 매제 위협한 30대 검거

유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흉기와 둔기로 매제를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사망한 A씨 어머니의 보험금 등 유산을 놓고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광주에 출장을 오면 A씨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중 잠적한 조현병 40대 재수감

정신질환 가증료로 보호관찰 중인 40대가 치료를 중단하고 소재지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44)씨의 가증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지난 2017년 7월 치료감호소의 위원으로부터 가증료 결정을 받고 출소했다.

센터는 A씨가 고양시 소재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물복용을 하도록 하고 새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A씨는 보호시설을 나와 소재를 감춘 채 생활했고 출소 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A씨를 검거해 가증료 취소를 신청, 법원이 인용해 치료감호소에 재수감했다.

또 치료감호소의 위원회로부터 가증료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B씨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버스기사 술 덜깬채 운행 나섰다 적발

술이 덜 깨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이후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에는 25기의 정류소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승객은 버스 운행이 불안한데다 기시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축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의 만취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기도 한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탔고 있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깨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후회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중상…경찰 수사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중학생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해운대구 반여지구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풋살장에서 친구 18명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학교 A(13)군이 갑자기 넘어진 골대에 머리 등을 다쳤다.

신고자인 A군 친구는 경찰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북측 골대에서 골키퍼를 맡은 A군이 골대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골대가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머리·턱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